일본 중견 면방의 신방적 시대로의 발전상 (5)

야마추보의 사례 - 사업의 확대보다는 품질 위주

예년 같으면 성수기가 지나 주문도 뜸해지는 단경기인데 2004년에는 주문이 꽉 차 있었다고 할 정도라서, 오카야마(岡山)현에 있는 삼비(三備) 지구에 판매망을 갖고 있는 방적들은 모두 바빴다. 특히 얼룩 실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2003년에 데님의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 2004년에는 주문이 넘치고 있었다.

그와 같은 방적의 하나인 야마추보(山忠紡)도 미면과 호주면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선라이즈 상표의 얼룩 실 및 스트레이트(straight) 실, 짐바브웨 면으로 뽑은 "선알파" 등의 생산량이 전년과 비교하여 20% 정도 증가할 정도로 호조를 보였다.

야마추보는 링 정방기 9대(4,320추)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8대가 얼룩 실을 생산하고 있고, 이 중에 6대에는 컴퓨터 슬럽 장치가 붙어 있다. 출하하는 원사의 80%가 삼비 지구의 빙고(備後) 산지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70%가 데님용으로 사용된다.

데님용 원사는 품질 규격이 엄격한데, 실의 강도, 실의 굵기 부동을 나타내는 U%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얼룩 실의 일부가 대만이나 홍콩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품질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아직도 얼룩 실은 일본 내에서 생산된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야마추보의 모회사인 야마추멘쿄가 외국으로부터 면화를 수입하여 판매하

고 있어, 특히 야마추보에게 소요되는 원면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유럽이 생산량의 태반을 차지하여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짐바브웨 면으로 뽑은 “선알파”를 변함없이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야마추보만이 가능하다. 그러한 원면을 1년간의 소요량인 약 6천표를 한 번에 확보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 어떤 데님의 텍스타일 메이커는 “선알파”만을 사용하여야 마음에 꼭 드는 데님으로 짤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소재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야마추보의 공장 건물은 방적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3층 건물로 홍콩의 방적 공장을 참고로 하였다고 한다. 현재 설비 투자는 데님이 대량의 원사를 소비하므로 실을 감는 콘(cone)이 작으면 원사를 이어주는 번거러움이나 이음 마디가 많아지므로 제직 공장으로부터 콘이 컸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요망하고 있으므로 콘이 큰 권사기의 구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곤(梱) 포장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 등의 구입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방적 설비의 증설은 원면 구매에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온리원의 실을 생산하고자 품질을 중요시하고 있어 품질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생산량은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고객엔 대하여 안정된 품질의 원사를 변함없이 공급해 주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